

특 집 ●●●

독서캠프 활동과 독서체험 프로그램

도서관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프학교를 중심으로

김승환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1. 서론

책을 읽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독서활동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독서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독서활동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독서활동은 책을 읽기 위해서 독서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읽어야 하는 책들이 무슨 책들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읽고, 다음으로 읽은 책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고 또 내용이나 느낀 것들을 발표하고, 다음 단계로 기회가 있다면 읽은 책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독서활동으로 좋은 독서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정리 단계로 이러한 독서활동을 통하여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면 더욱 훌륭한 독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08년 7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3박 4일간 충청남도 안면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프학교’를 개최하였다. 경기, 충청지역의 16개 공공도서관에서 중학교 1, 2학년 6명씩을 추천받아 96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학교에서는 독서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독서후의 독서활동을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독서캠프학교의 활동 프로그램은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독서활동에서 벗어나 독서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실현해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서후의 활동을 체험하는데

▼ 독서캠프학교 입교식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독서캠프의 목적은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독서활동으로 얻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서후의 활동을 활용하게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독서 생활은 책을 읽는 과정만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독서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득하여 그 과정을 적용하면서 독서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독서활동의 효과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캠프학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독서캠프 프로그램과 느낀 점에 대한 결과를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독서캠프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참여하게 된 동기과 첫 느낌(첫 인상)과 평소 생각하고 있는 독서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았고 독서캠프학교가 끝나는 날 독서캠프 프로그램과 독서 활동에 관해 소감이나 느낀 점을 쓰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독서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참가자 96명을 12명씩 8개 반으로 조직하여 독서활동을 지도했다. 독서지도자는 경기, 충청지역의 16개 공공도서관에서 참가자들을 인솔한 사서 16명 중 8명의 사서가 각 반의 정담임을 맡아 학생지도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8명의 사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을 담당하였다. 또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독서활동 동아리 한국독서생활화연구회(RRR: 강남대학교 소재) 회원 18명 중 8명이 각 반의 부담임을, 나머지 10명은 독서활동 보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관한 중점 독서체험은 독서후의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활동인 ‘독서 감상문 원고지에 쓰기’, ‘독서발표’, ‘독서토론’, ‘독서 감상 만화로 그리기’ 등 4가지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도록 했다. 이러한 독서활동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해 준 73종류의 책 중에서 토론도서로 중학교 1학년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계리 힐 지음)을, 중학교 2학년은 『마당을 나온 암탉』(황중미 지음)을 선정해 모두 읽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토론도서 외한 권을 더 읽고 발표하고, 독서 감상문 쓰기와 독서 감상 만화 그리기를 하도록 하여 최소한 2권을 직접 읽도록 지도했다.

▼ 사서선생님들의 인사말씀



2. 독서후 활동을 위한 독서체험과 독서캠프 프로그램 현황

2.1 독서후 활동과 독서캠프학교 프로그램

독서후 활동은 독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이나 주인공 또는 사건 등에 따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 의하여 생각하게 되는 과정으로 새로운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생각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토론을 한다면 자기의 생각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또 독서를 통하여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느낀 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뭉뚱그리는 힘을 기르게 된다.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발표’, ‘독서토론’, ‘독서 감상 만화 그리기’ 등 이 4가지는 독서후 중요 독서활동으로 독서캠프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독서체험을 하도록 지도 했다. 표 1.에서 보면 독서캠프 개교 3일째 되는 날 그 동안의 독서활동을 정리하는 날로서 이 중요한 독서활동을 모두 체험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 독서시간



▼ 독서감상문 쓰기



표 1. 도서관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프학교 기본 프로그램

월 일	7월 22일(화)	7월 23일(수)	7월 24일(목)	7월 25일(금)
개교일	개교 1일째	개교 2일째	개교 3일째	개교 4일째
주제일	만 남 의 날	사 권 의 날	정 리 의 날	다 짐 의 날
07:00	참가도서관별 출 발	06:00 일어나기 체조와 세면	06:00 일어나기 체조와 세면	06:00 일어나기 체조와 세면
08:00	참가도서관별 출발 확인	아 침 식 사 반별 모임	아 침 식 사 반별 모임	아 침 식 사 반별 모임
09:00	출발 준비	아침 시작 모임 반별발표	아침 시작 모임 담임시간	아침 시작 모임 수료식 담임시간
10:00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출발 캠프장 도착 방배정과 점심	독서와 지도	독서와 지도	독서회 조직 평가회
11:00				캠프장 정리
12:00		점 심 휴식과 독서	점 심 휴식과 독서	점 심 떠날 준비
13:00	방 정리 반 발표	사진촬영	독서 감상문 쓰기 대 회	캠프장에서 서울에
14:00	입 교 식	독서와 지도	독서발표	
15:00	반 물품지급 반별 시간		독서 감상 만화 그리기	
16:00	특강 : 책 속에서 나의 길을	작은 운동회 독서게임 활용	독서토론	한국도서관협회 도착
17:00	독서지도 계획		독서활동 총정리	
18:00	저녁 식사 휴식/반별시간	저녁 식사 휴식/반별시간	만 찬 회	각 도서관별 귀가 조치
19:00	친교의 시간	독서신문 만들기	캠프파이어 준비	귀 가
20:00	하루일 마침 모임	하루일 마침 모임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21:00	방별 시 간 〈학생 잡자리 들기〉	방별 시간 〈학생 잡자리 들기〉	독서공주왕자선발	
22:00	연석회의 프로그램점검	연석회의 프로그램점검	〈학생 잡자리 들기〉 연석회의 프로그램점검	
23:00	모두 잡자리 들기	모두 잡자리 들기	모두 잡자리 들기	

Special

중요 4대 독서체험 프로그램은 각각 한 시간씩으로 '독서 감상문 원고지에 쓰기'는 독서와 지도 시간에 읽으면서 정리한 것을 한 시간을 주면서 원고지에 옮겨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독서발표'는 반별(한 반은 12명씩)로 모여서 발표대회를 갖도록 하고, '독서토론'은 학년별로 하는데 토론 그룹을 한 그룹이 10여명이 되도록 편성하여 한 시간 동안 자유토론(원탁식 토론)으로 진행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독서 감상 만화로 그리기'는 6컷으로 된 A4 원고지에 한 시간 동안 그리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2 독서캠프 활동 프로그램과 독서체험 프로그램

독서캠프학교 프로그램은 독서캠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하여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한 순수 독서활동 프로그램, 순수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과 독서활동과 깊은 관계가 없지만 캠프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캠프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로 구성하여 계획을 세웠다.

순수 독서활동 프로그램은 독서후의 활동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독서특강, 독서와 지도,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발표, 독서토론, 독서 만화 그리기 등으로 집중적인 독서활동이다. 독서활동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지도 계획, 반별 활동시간,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회 조직, 독서활동 평가 등으로 주제를 모두 독서와 연결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서캠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인 입교식이나 수료식, 친교의 시간, 작은 운동회, 만찬회, 캠프파이어, 연극제, 촛불의식, 독서왕자 공자 선발 등의 프로그램은 캠프활동 전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순수 독서활동 프로그램이나 독서활동 보조 프로그램은 독서활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 반별활동 - 담임선생님과 함께



▼ 반별독서토론



독서활동을 전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캠프활동만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캠프 지원 프로그램은 독서활동과 연계되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 고심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은 운동회를 진행할 때 보통 캠프에서는 실내에서 게임으로 운영할 때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 독서캠프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는 독서나 책, 또는 도서관과 연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3. 독서캠프를 통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실태 분석

3.1 독서캠프 참가학생 현황과 분석

독서캠프 참가학생 신청자는 96명이었는데 3명이 불참하여 93명이 독서활동을 했는데, 3일 째 되는 날 밤에 2명이 귀가하게 되어 마지막 날 질문지를 통한 평가 시간에는 91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표 2.에서 보면 총 91명은 중학교 1학년은 41명, 2학년 48명, 3학년이 2명이며,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31명 여자는 60명으로 여자가 배나 참가했다.

표 2. 독서캠프학교 참가학생 현황

구 분	중학교 1년			중학교 2년			중학교 3년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15	26	41	14	34	48	2	0	2	91	31	60
참고	신청자 96명 중 93명 참가, 93명 참가 중 셋째 날 저녁에 2명 귀가로 질문지 응답자는 91명 그리고 중학 3학년 남자 2명은 중학교 2학년 남자와 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음.											

그리고 독서캠프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소개서 내용에 독서캠프 참가 소감을 묻는 질문으로 ‘독서캠프에 참가하게 된 동기’, ‘독서 캠프학교 첫 인상’과 ‘독서생활에 관한 소감’ 등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기소개에서 나타난 독서캠프 참여에 관한 분석

구 분	내 용		계(%)
참가하게 된 동기	①	어머니(부모)가 신청(또는 권유)에 의해서	39(38.7)
	②	좋은 독서활동을 경험하고 캠프라는 호기심에 의해	22(23.7)
	③	친구의 소개나 친구와 같이 참여해하기 때문에	11(11.8)
	④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안내로	09(9.7)
	⑤	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07(7.5)
	⑥	과외 선생님이 소개 해 주어서	04(4.3)
	⑦	무응답	01(01.1)
독서캠프학교 첫 인상	①	친근감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괜찮은 편이다	20(21.5)
	②	즐겁고 재미있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19(20.4)
	③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기대 된다	16(17.2)
	④	어색하고 지루 했지만 좋아지고 있다	14(15.1)
	⑤	낮 설고 어색하다	09(9.7)
	⑥	아직 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08(8.6)
	⑦	좀 지루 하다	07(7.5)
독서활동에 관한 생각	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53(56.1)
	②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34(36.6)
	③	집중력 없이 책을 읽는다	02(2.2)
	④	무응답	04(4.3)

‘독서캠프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서 부모가 권유를 해서 참가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39명(38.7%)으로 1위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별 뜻이 없지만 반 강제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위인 22명(23.7%)은 독서에 관심이 있고 독서캠프라는 것에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가한 학생들이 있었다. 다음은 소개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답하고 있는데 친구, 도서관 사서,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서캠프학교의 첫 인상’에 관한 느낌은 1,2,3위 모두가 아주 긍정적으로 친근감이 있고 재미있고 유익 할 것 같아 기대가 된다는 등의 답변으로 55명(59.1%)이다. 나머지 31명(40.9%)은 독서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학생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평소 독서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은 53명(56.1%)이 독서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느끼고 있으며, 40명(43.9%)은 관심이 없거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독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참가 동기는 4분의 3이 피동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꼭 오고 싶거나 호기심에서 온 학생들은 4분의 1 정도다. 그러나 독서캠프가 시작되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에 의한 첫 인상은 아주 좋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프로그램에 기대가 간다고 했다.



▲학생들이 만든 독서신문

3.2 독서캠프 활동에 관한 질문지 분석

독서캠프를 마치면서 참가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질문지를 활용했는데 문항은 10문항이었다. 객관식으로 5개 중에서 한 개를 체크하도록 하는 문항이 8문항이고, 2문항은 주관식으로 답을 쓰게 하는 문항이었다. 객관식 문항 중 4개 문항은 독서캠프학교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항이었고, 4개 문항은 독서후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으로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발표, 독서토론, 독서 감상 만화 그리기 등에 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주관식 문항은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3개를 순서대로 쓰도록 하는 문항과 제일 재미없었던 프로그램 3개를 순서대로 쓰게 하는 문항이었다.

이러한 10개의 문항 중 몇 개에 대해서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독서캠프학교 기간인 3박 4일간의 활동으로 자신의 독서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번 독서캠프 참가활동으로 독서생활에 대해 얻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7.8%(89명)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다(있다 29.7%, 조금있다 36.3%, 많다 31.9%).

② 독서후의 활동으로 독후감 쓰기, 발표, 토론, 그리기 등 4가지 독서활동 체험에 대해 결과를 알아보고자 질문을 하였다.

독서발표는 전체적으로 90.0%가 긍정적이고, 46.2%는 독서발표 시간이 ‘좋았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인 2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남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독서토론에 대해서는 91.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좋았다’ 44.0%, “아주 좋았다” 24.2%로 나타났다. 독서토론은 고학년인 2학년에서 더 좋은 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서 감상문 쓰기는 독서과정에서 정리한 독서 감상문을 원고지에 옮겨 쓰기까지 했는데 81.3%로 독서발표나 토론에 비해 약 10%나 낮게 나타났다. 독서 감상문 쓰기가 ‘좋았다’ 41.8%, ‘아주 좋았다’ 4.0%나타났는데 1,2학년 비슷하지만 2학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독서감상 만화 그리기는 76.8%만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4가지 체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좋았다’ 35.3%, ‘아주 좋았다’ 9.9%로 나타났는데 2학년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③ 독서캠프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과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자, 각각 순서대로 3개씩 쓰도록 하였다.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으로는 1위는 연극제, 2위는 친교의 시간, 3위는 작은 운동회로, 세 프로그램 모두 책 읽기와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4위와 5위가 각각 독서토론, 독서 감상 만화 그리기인데, 독서체험의 중요한 활동으로 꼽고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지도한 독서후의 4대 프로그램 중에서 독서토론과 감상화만 순위에 올라왔다¹⁾.

또한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위는 독서감상문쓰기, 2위는 독서감상만화그리기, 3위는 독서토론, 4위는 특강, 5위는 독서감상문 발표, 6위는 독서와 지도, 7위는 독서 골든벨, 8위는 캠프파이어, 9위는 반활동으로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차지했다²⁾.

④ 또한 독서발표, 독후감쓰기, 독서토론, 독서감상 만화그리기 등 독서 후의 중요한 4대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여보면, 독서토론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52.4%가 ‘좋았다’ 또는 ‘아주 좋았다’ 로 나타나 독서캠프학교의 프로그램과 독서후 활동에 대해 참가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참조).

표 4. 독서후 4대 프로그램 체험 결과 비교

내 용		발표	쓰기	토론	그리기	계
①	아주 좋지 않았다	3(03.3)	4(04.4)	2(02.2)	5(05.5)	14(03.8)
②	좋지 않았다	7(07.7)	13(14.3)	6(06.6)	17(18.7)	43(11.8)
③	그저 그러했다	35(38.5)	32(35.2)	21(23.1)	28(30.8)	116(31.9)
④	좋았다	39(42.9)	38(41.8)	40(44.0)	32(35.3)	149(40.9)
⑤	아주 좋았다	7(03.3)	4(04.0)	22(24.2)	9(09.9)	42(11.5)
계		91(100)	91(100)	91(100)	91(100)	364(100)

1) 이번 캠프에서 캠프파이어와 연극제는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캠프파이어는 비가 온 관계로 운동장에서 모닥불을 피운 정도였으며, 강당에 들어와 그동안 학생들이 각 반별로 준비한 연극을 발표하도록 했는데 내용은 반드시 책, 독서, 도서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여 연극 각본을 쓰도록 하였다.

2) 이러한 설문응답은 이번 독서캠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독서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평소에도 경험해 보기에 어려운 프로그램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등이 실제 독서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계기로 충분한 효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독서캠프를 마치는 소감에 관한 분석

독서캠프 활동에 관한 소감을 직접 쓰는 시간을 주고 쓰도록 했는데 모두 정성껏 쓰면서 3박 4일이 너무 짧은 느낌으로 재미있었고 즐거웠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기회가 또 있다면 또 한 번 체험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반 친구들에 관한 좋은 점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하면서 좋은 언니 오빠 동생들을 사귀게 되어 좋았다고 했다. 또 선생님들 모두가 좋았지만 담임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자신의 독서활동에 관한 반성도 했으며, 앞으로의 독서생활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학생도 있었다.

4. 독서체험은 독서캠프 활동으로

독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독서후 활동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독서캠프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을 3박 4일간 실시한 결과를 질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독서캠프의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은 독서활동을 실제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캠프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체험을 통해 인상 깊게 경험하게 되었다. 깊이 있게 체험한 결과가 독서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앞으로의 독서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본다.

독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독서후 활동인 독서 감상문 발표나 독서토론은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다른 독서활동은 개인적으로 실행하거나 실시할 수 있지만 독서 감상문 발표나 독서토론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어려운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독서캠프를 통해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도서관을 활용한 청소년 독서캠프 학교'에 참여한 90여명의 청소년들이 체험한 독서활동은 좋은 독서활동으로 평가되어 성공적으로 본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청소년들이 깊이 있고 빨리 체득할 수 있는 독서경험을 통하여 독서가 생활화 되도록 독서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 독서캠프학교를 마치며, 수료증 수여

